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Reuters: 6월 미 기업 활동 성장 둔화... 서비스업은 호조
- WSJ: “우려했던 경기 침체 오지 않는다”
- Bloomberg: 옐런 장관, “침체 가능성 적어... 소비 둔화 필요하다”
- WSJ Real Time Economics: 미국인, 80년대 보다 더 잘 살고 있나?

[미국 금융]

- NYT: 미 주식 시장 연준 신호 때문에 상승 일시 중단

[반도체]

- WSJ: 미 화학제조사 및 기계 공급회사, 반도체 지원금 받아

[글로벌 경제]

- WSJ: 유럽, 일본, 호주 경기, 예상보다 빨리 식어
- Bloomberg: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다가오는 이유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여성 직업 80%, AI에 의해 중단될 수 있다
- CNN Business: 스타벅스 매장 150개 매장 직원 파업 돌입
- WSJ: Ford “미 직장인 “새로운 정리 해고 준비 중”
- TechCrunch: Google “교실을 위한 새로운 접근성 및 학습 기능 소개”
- WSJ: 플라잉 택시 파리 에어쇼에서 주목 받지 못했다

[보고서]

- J.P. Morgan Perspectives: JP 모건 글로벌 공급망 전망
- BusinessInsider: 공감력있는 직장 보스가 되는 방법
- Fortune: 기업 중간 관리자 역할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Reuters: US business activity growth slows in June but services keep humming along

6월 미 기업 활동 성장 둔화... 서비스업은 호조

- 올해 처음으로 서비스업 성장이 완화되고 제조업 부문의 위축이 심해지면 서 6월 미국 기업 활동이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은 지난해 연준의 긴축에 따르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2 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요일 S&P Global 미 제조/서비스 PMI에 따르면 6월 53으로 감소해 지난 3월 이후 가장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 확장을 의미하는 수치 이른바 50이상을 5개월째 계속 유지하고 있다.
- 이번 구매 관리자 설문조사는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이루어졌는데 미국 경제가 4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GDP

의 전반적인 성장을 위해 서비스 부문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Reuters 기사

WSJ: Where's the Recession We Were Promised?

“우려했던 경기 침체 오지 않는다”

- 이코노미스트들과 연준 관리들은 지난해 예상한 것과는 달리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일축하고 있다.
- 앞으로 경제가 더 튼튼해지고, 주가와 채권 수익률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유는 첫째,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공급원을 확보하면서 에너지 가격 가격이 하락해 수요에 잘 대응하고 있다.
- 둘째로 경제와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금리에 상대적으로 둔감했다. 기업과 소비자는 팬데믹 기간에 저금리 장기 대출에 있었고, 근로자 임금 인상 폭이 인플레이보다 높았다.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 금융 여건이 완화되었다.

WSJ 기사

Bloomberg: US Treasury Secretary Yellen Sees Lower US Recession Risk, Says Consumer Slowdown Needed

옐런 장관, “침체 가능성 적어... 소비 둔화 필요하다”

-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경기 침체 리스크는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플레이 억제 조치를 마무리하는 대가로 소비자 지출 둔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그는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회복력을 보면 인플레이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지속적인 연준 긴축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이같은 미국에 대한 상황은 유럽지역의 경기 침체 우려 확대가 대조적이다. 현재 유로지역이 경제활동은 거의 정체된 상태.

Bloomberg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 미국인, 80년대 보다 더 잘 살고 있나?

[미국인, 80년대 보다 더 잘 살고 있나?]

- 학자간에 의견이 다르다.

-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지고 있다는 American Compass 디렉터 Oren Cass 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임금이 과거보다 올라간 것 사실이지만 중산층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인 교육, 교통비, 의료비 등이 너무 크게 올랐다고 한다.
- 반면에 중도보수 연구소인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Scott Winship 는 인플레이션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낮은 연방세를 고려하면 과거보다 더 잘 살게되었다는 입장이다.

[미국 금융]

NYT: Stock Market Rally on Pause as Investors Take Cue from the Fed 미 주식 시장 연준 신호 때문에 상승 일시 중단

- 연준이 계속 10차례동안 금리를 인상한 후에 지난주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해 인상 조치의 경제 효과를 기다리는 상황에 금리는 상승했었다.
- 그러나 주식 투자자들은 이번주 들어서는 잠시 신중한 상태로 전망이 확실할 때 까지 최근 랠리가 조용한 상태에 있다.
- S&P 500 지수는 지난 5월초 이후 첫 주간 하락이 예상되며 2021년 이래 지수의 랠리가 일단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주 하락폭은 그간의 상승폭에서 1%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미 침체에 더 민감한 소규모 기업들의 주가 지수 Russell 2000지수는 이번주 내내 목요일까지 1.5%의 손실을 보였다.

NYT 기사

[반도체]

WSJ: Chemical Makers, Tool Suppliers Can Now Get Chips Act Money 미 화학제조사 및 기계 공급회사, 반도체 지원금 받아

-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 시행되는 반도체법에 따른 연방 지원금 자격을 확대했다.
-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을 위해 기계공구(Tools), 화학 물질 등을 제공하는 업체는 반도체 제조 회사와 더불어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오늘 금요일 발표된 조치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내 입지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TSMC사는 피닉스에 4백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지원하는 수십개의 공급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미국에 요청했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WSJ: Central-Bank Action Finally Cooling Global Economy, Data Indicate 유럽, 일본, 호주 경기, 예상보다 빨리 식어

- 당초 올해 첫 3개월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회복세를 보였었다. 중국의 코비드 제한 해제 조치 효과와 유로전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회복세를 보인 것. 이런 회복세가 중앙은행들을 놀라겠으며 인플레이 억제가 더 어렵게 되었다.
- 그러나 오늘 금요일 발표된 S&P Global 구매 관리자 지수 설문 조사 결과 예상보다 빨리 유로존, 일본, 호주에서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되었다. 특히 서비스 부문의 활동은 전월보다 더 서서히 성장했지만 제조업 활동은 계속 부진한 상태를 보였다.
- 제조와 서비스 부분 모두의 유로존 구매관리자지수는 5월에 52.8에서 50.3으로 떨어졌다.
- 한편강세를 보였던 유럽의 서비스 수요가 6월에 악화되면서 유럽 기업활동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차입 비용 상승이 결국 글로벌 경제를 내갈 시킬수도 있다는 것이다.
- 또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인플레이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고 보고한 기업들은 고객에 부과하는 가격 뿐만 아니라 기업 비용이 줄고 있다고 답했다.

WSJ 기사

Bloomberg: Why a Crisis Is Looming in Commercial Real Estate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다가오는 이유

- 문제 징후: 상장 부동산 기업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했다.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은 비상장이고, 금리 변동과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라 가치 평가가 오래 걸릴 수 있다. MSCI 세계 부동산 지수는 2022년 초 이후 28% 하락했다.
- 원인: 가장 큰 원인은 차입 비용이다.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 그러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은 비유동성 자산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
- 가치 하락이 문제가 되는 이유: 부동산 회사의 빌릴 수 있는 능력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부채, 즉 가장 중요한 가치 대비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
- 해결 방법: 자산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면 거래 증거가 남아서 어 감정평가사가 나머지 자산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 따라서 일부 임대인은 실제 할인 가치를 위장하는 방식으로 자산 매각을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다.
- 비어있는 오피스로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주거용 건물로 전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을 반영하여 건물을 현대화하고 개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자는 비용이 많이 들어 현재 가격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CNN Business: Nearly 80% of women's jobs could be disrupted, automated by AI****여성 직업 80%, AI에 의해 중단될 수 있다**

- 미국 25~54세 여성 노동 참여율이 올해 5월 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동 시장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AI로 인해 변할 수 있다.
- 최근 North Carolina대학 교수 Kenan와 Flagler Business School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79%(약 5천 9백만 명)가 AI 자동화에 취약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남성 근로자 58%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 또한 여성 직원 대다수가 AI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사무 및 행정 지원, 의료 종사자 및 기술, 교육, 훈련 및 도서관, 의료 지원, 커뮤니티 및 사회 서비스 등이 포함 된다.

CNN Business 기사

CNN Business: Starbucks workers at 150 stores go on strike over Pride decorations**스타벅스 매장 150개 직원 파업 돌입**

- 미국 내 약 150개 매장의 스타벅스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이번주 금요일 파업에 돌입했다. 매장 내 프라이드(Pride) 장식 정책에 대한 분쟁 때문이다.
- 이들은 스타벅스가 프라이드 달을 기념하는 장식을 제한했다며, 이는 “성소수자 근로자에 대한 위선적인 대우”라고 주장했다. 또한 트윗을 통해 약 3천 5백 명의 직원이 다음 주 동안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스타벅스는 이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들은 안전 지침을 준수하는 한 원하는 대로 매장을 장식할 수 있다며, 프라이드 장식을 금지한 매장은 모른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매장에서 프라이드 장식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CNN Business 기사

WSJ: Ford Prepares New Round of Layoffs for U.S. Salaried Workers
Ford “미 직장인” 새로운 정리 해고 준비 중

- Ford는 또 다른 정리 해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몇 주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운영을 간소화 하고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 Ford가 이번 감원 계획에서 몇 명을 해고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감원은 가스 엔진, 전기차, 소프트웨어 사업부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 회사는 연간 최소 30억 불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진은 Ford가 경쟁 회사보다 매년 약 70~80억 불을 더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WSJ 기사

TechCrunch: Google introduces new accessibility and collaboration features for classrooms

Google “교실을 위한 새로운 접근성 및 학습 기능 소개”

- 구글은 화요일 국제 교육 기술 협회 박람회에서 새로운 접근성 및 학습 기능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읽기 모드 확장, 수화 통역사 페어링, AI 기반 질문 제안 등이 포함된다.
-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중심 과제에 AI를 도입했다. 교사는 직접 질문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말레이시아어를 지원하고 있다.
- 이 회사는 교육용 Workspace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고급 보안, 학습, 기기 관리 및 분석과 같은 기능의 경우 학생당 연간 3불(표준 기능) 또는 5불(고급 기능)을 지불해야 한다.

TechCrunch 기사

WSJ: This Flying Taxi at the Paris Air Show Is Quiet. Too Quiet.

파리 에어쇼의 플라잉 택시 주목 받지 못했다

- 독일의 Volocopter는 내년 하계 올림픽에서 사용될 비행 택시를 개발했고, 이를 올해 파리 에어쇼에서 선보였다. 하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 주목 받지 못한 이유는 1) 항공기 소리보다 다른 소리가 더 커서 묻혔고, 2) 공중에서 회전하며 퍼포먼스를 보이는 타 항공기에 반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일반적으로 에어 택시는 조용할 수록 좋다. 기존 헬리콥터는 날개와 엔진으로 인해 큰 소음이 나기 때문에 도심 단거리 승객 수송에 적합하지 않았다.
- Volocopter는 올림픽에 맞춰 내년 여름까지 도시 전역 5곳의 착륙장에서 5대의 항공기로 택시 서비스 운영을 목표로 한다.
- 이를 위해 유럽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유럽 연합 항공 안전국의 승인도 받아야 하며, 이들은 항공기가 특정 소음 및 안전 기준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WSJ 기사

[보고서]

J.P. Morgan Perspectives: The great supply chain disruption: ASEAN's rise, India's potential, USMCA and Chino-Latino flows

JP 모건 글로벌 공급망 전망

- 1. 탈세계화는 아직 아니지만, 분명한 점은, 전통적인 무역 패턴이 붕괴되고, 새로운 무역 통로가 등장하고 있다. 탈동조화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지만 다국적 기업들은 공급망과 관련된 국가 안보 해결 차원에서 기업들의 위험 평가를 재조정하고 있다.
- 2. 산업정책 관련해 G7국가들은 중국이 오랫동안 시행해온 산업 정책 유형을 반영 또는 모방하고 있다. 미국의 최근 시행되고 있는 양당 인프라법, IRA 법, 반도체 진흥법 도 이와 유사하다.
- 3. 아시안과 북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의 지원 정책, 비용 경쟁력, 산업 발전, 기존 제조업 허브와의 연결, 중산층 소비자 증가는 향후 5~10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구조적 동력이라할 수 있다.
- 4. 중국의 인구 분포와 이른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차이나 플러스 원' 수요 때문에 공급망의 이전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생긴다.
- 인도의 인구 급증은 큰 경제 개발 기회다. 그러나 '차이나 플러스 원'과 우방국 끼리 협력하는 '프렌드 쇼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투자 관련 강력한 FDI 유입이 이뤄져야 한다.
- 5. 러시아 전쟁은 중국/러시아 무역과 국경간 교류를 영구히 바꾸었다. 러시아는 3가지 전략을 추가하고 있다. 즉, 1)서방이 통제하는 해역을 우회하는 새로운 무역로 개척 2)에너지 수출을 탈달러로 하고 있으며 2) 중국으로 부터의 다각화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 6. 탈달러화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점은 있지만 러시아/중국 무역에서 위안화 국제 거래는 커지고 있다.
- 물론 국제 거래 지배에서 탈달러화 조짐은 없지만 중국 국경간 거래에서 달러와 비중은 꾸준히 줄고 있다.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수출 관련 위안화 결제가 늘고 있다.
- 7. 러시아 외에도 사우디, 인도, 중국, 터키가 석유 구매국중에 미국 달러 대신 다른 통화를 사용하거나 대체 통화를 찾고 있다. 상품 거래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

J.P. Morgan 원문

BusinessInsider: How to be an empathetic boss, even when you're completely burned out
공감력있는 직장 보스가 되는 방법은?

- 좋은 직장 상사와 나쁜 상사를 나누는 성격적 특성은 공감 능력 여부다. 국제 회계법인 Ernst & Young이 2021년 미 근로자 1천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공감하는 관리자가 있으면 업무 만족도나 생산성, 충성도가 올라간다”고 답했다.
- 반면에 응답자의 반 이상은 “일에서나 개인 생활에서 어려울때 이를 공감하지 않은 상사 때문에 직장을 떠난다”고 밝혔다.
- 공감하는 상사가 적다는 점이 슬프게 한다. Gartner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직원 3천4백명 조사에서 29%만이 바로위 상사가 진정성, 적응성, 공감을 보여준다고 답했다. 10명에 3명 꼴이라는 것. 물론 관리자들 스스로가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 자신도 과부하에 걸려 있다.
- 최근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나 조직체가 직원들을 잘 유지시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직원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배려 받고 있는가? 상사가 내가 겪는 일을 이해하는가?, 내가 소속감이나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가?” 자문해 본다. 이런 질문에 부정적일 때 다른 직장이 더 좋게 보이기 시작한다.
- 당초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때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짊어지는 부담과 어려움에 공감했었다. 그러나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상황에서는 고용주들이 이런 어려움에 오히려 적응이 되어버렸다. 내성이 생겨 버렸다. 재택 근무 옵션도 직원들의 번아웃을 돕는 지원책이 사라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직원들은 관리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다. 직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직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 결국 관리자들은 직원들에게 스스로 존중받고 이해받고 있다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말과 행동’사이의 갭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예 관리자가 고갈된 상태일 경우 더 큰 해결책이 필요하다.

[공감하는 마음 개발하기]

- 최고의 관리자가 직원을 어떤 사람으로 보아야 하면, 직장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그릇으로보지 말고 직원들은 가족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직장 바깥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중간 관리자는 왜 그렇지 못할까? 이른바 ‘공감 피로’ 때문이라는 것.
- 큰 문제는 시스템적인 문제이며 이를 위해 조직체는 리더십 교육과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뉴헤이븐 대학의 산업및 조직 심리학 Mo Cayer는 강조한다.
-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기 힘든 경우에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한다. 공감능력을 키우려면 타인에 너그러울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너그러워한다. 즉, 자선이 주어진 상황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 소진된 상태의 관리자를 위한 조언이 있다. “팀을 위해 관리자 당신의 윗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자신이 공감받지 못하고 있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다.

Fortune: Preventing burnout is now the number one job for bosses. These 7 strategies can protect your teams

기업 중간 관리자 역할

- Future Forum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근로자의 42%가 작년 겨울에 번아웃을 느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2% 증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자가 안정감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감성적 교정(emotional proofreads) 습관화: 팀원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내가 이 이메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야 한다. 이는 이메일을 받는 개인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2. 명확한 목표 설정: 관리자는 팀원간의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 3개월 기간으로 공동 목표를 정해야 한다. 3개월은 급변하지 않는 목표를 설정하고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다.
- 3. 개인 감정 인정: 행정 과학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생산성이 향상 된다. 아이디어나 우려 사항을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4. 팀원 복지 투자: Northwestern University 교수 Carter Cast는 팀원에게 전문성 개발 기금, 추가 유급 휴가와 같은 실질적 혜택 투자를 권장한다. 팀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다.
- 5. 공개적으로 칭찬: Carter Cast는 "금전적 보상이 힘들다면 심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그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6. 전문성 개발 집중: 매년 팀원들에게 향후 3~5년 내로 하고 싶은 직무가 무엇인지, 아직 부족한 자질은 무엇인지 묻는다. 또한 팀원의 불만을 미래 지향적인 대화로 파악한다.
- 7. 업무 외의 시간 제공: 개인 충전을 줄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면 좋다.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함께 모이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사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Fortune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엘런 美재무 "미국 경기침체 위험 낮아져...지출 둔화 필요"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상향 논쟁에 "적절치 않아"

재닛 엘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소비자 지출 둔화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종료의 대가가 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엘런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경기침체와 관련해 "노동시장의 회복력과 인플레이션 하락을 감안할 때 침체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해 3월 이후 10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향후에 추가로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 뒤 "연준이 긴축 통화정책을 하고 있어 위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